

癌의 醫學 (中)



李 恒

癌에 대한 공포증에서 해방되는 날은

지금 우리주위에 누구인가가 癌이란 질환으로 투병하고 있고, 가까운 친지나 식구중에 癌이 死因이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기존사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최근에는 言論「메디아」를 통하여 일반인의 건강관리를 論할때 癌으로 인한 수명단축이 흔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 누가 아프다면 암이 아닌가 먼저 걱정이 되고, 나부터도 혹시 암에 걸렸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癌에 대한 恐怖症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암의 원인이 아닌가, 저것이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척들이

암으로 「쓰러졌으니」, 나도 암이 걸리는 것이 시간문제요, 이미 암환자나 된듯한 생각, 여기저기 암에 둘러싸여 있는것 같은 망상까지 생기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망상에 지나지 않는 헛걱정인가? 그렇다면 이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암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지만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아는것은 너무도 적다. 어떠한 염려는 근거가 있고, 또 어떤걱정은 무지와 오해에서 오는 망상이다. 무지는 오해를 낳고, 또 오해는 공포심을 일으켜 실공치를 허겁지겁 풀다가 결국 실마리를 잃

게 한다. 막연한 공포증은 해결점을 찾는 시도조차 목살시키고 앞으로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조차 아련하게 만드는 위협성이 있고, 실제로 현시점에서 쉽게 가능한 해답을 더멀리 멀어지고 놓치고 말게 하고 있다.

하기는 확실한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규명된 것이 극히 적을 정도로 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 많다. 그러나 기초과학과 생명과학의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암에 대한 지식은 날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인들까지 제빨리 소화하기 힘들어, 계속 고통과 과장을 출현하고, 결국 체계화를 통한 정리가 미비하여 일반인들을 좀더 오리무중에 휘몰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비한 지식이라도 체계화되어 일반에게 소개된다면, 현시점의 불안정한 발전상태의 지식이라도 제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오해와 공포심을 저하시킬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적어도 제대로 진단이 좀더 가능해지고, 좀더 높은 치료성공률을 확보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단지 종양학이 당면하는 시급한 사명일 뿐만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의 사명이며, 우리사회 전체의 숙제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세기동안 제걸음을 많이 거둬들여 오다가 갑작스런 발전을 이룩하는 민족이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경지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세계의 문화를 제빨리 흡수하여, 우리의 잠재성을 활현시켜, 발전 도상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모색하면서, 문화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복지사회의 시점에 다달아 있다. 그만큼 보건향상을 일반국민이 요구하게 되고, 지나친 욕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사회발전에 알맞은 의료계의 보건사업향상을 기대하게 된것이다.

암이 致死病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일반인의 의식에 散在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몇몇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치료되고 있고, 제대로 진단치료를 받아서 완치에 가까운 건강을 즐기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같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부단한 노력과 우리나라 국민의 뛰어난 잠재능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일반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고있고, 그만큼 보건의료계의 발전도 많았다. 기계문명이 급격히 생활화되어 발전도상국이나 선진우방에게 까지도 부러움을 사고있다. 한편, 암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혹」때려 도깨비에게 보내는 현황을 관망만하고 있을것인가? 도깨비를 대치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미국에서 평균수명은 1900년대에 불과 50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82년에는 73세까지 증가되었고, 한국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영아사망율이 해방전보다 약 1/10정도로 줄면서 연장된 수명으로 표현될 것이며 여러질환이 그만큼 치유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疾病構造가 달라짐에 따라 死因의 順位가 달라지고 있으며, 한국도 例外가 될수없다. 1950년대까지 首位를 차지하던 결핵, 폐렴등 감염질환의 사망율이 저하되면서 死因으로써 癌이 先頭에 서게 되었다.

歐美나 日本에서도 惡性新生物, 즉 癌이 死因으로써 2位, 1位를 各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인으로 1953년에 9位를 차지하던 癌이 현재 2位나 3位를 차지한다. 死因의 순위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고 35세부터 64세 미만에서는 암은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의 중견을 이루는 40代와 50代에서는 死亡者中 5名중에 한명에서 癌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영향이 막대하다 하겠다.

어린이에서도 암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을 흔히 듣는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1세와 15세사이의 아동들의 사망원인중에 암이 사고다음으로 2位를 차지한다. 약 10년전 미국암협회의 통계로는 한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지나는데 암이 발생할수 있는 확률이 약 30%나 된다고 한다. 숫자는 어떠한간에 우리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은 암이 우리생명에 큰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統計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해석하기에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암의 사망율이나 死因의 順位가 암의 발생율이나 치료성적을 반영한다고 볼수는 없다. 암의 진단과 치료기술이 현저하게 발전했지만, 즉각적으로 암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기초과학의 발전이나 의료술

이 암진단치료에 실제로 적용되고 두루 알려진후에야 壽命의 연장이나 암치료 성공률에 대한 통계로 발표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해의 시간이 걸린다. 현재의 지식이나 통계는 사실을 왜곡할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43%가 5년 혹은 그이상 생존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국립암연구소장, 빈센트 테비타박사의 말처럼, “癌은 오늘날 가장 잘 치료되는 慢性疾患中의 하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역시 국민건강관리를 생각한다면 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무시할수 있을까? 우리도 암이 가장 잘 치료되는 질환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것이 아닌가?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37년에 國法으로 국립암연구소령을 제정하여, 암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71년에 다시 폭 넓혀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英國, 소련, 서독, 日本등으로 전파되어 국제적인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미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여러병원이 협력하여 암의 진단과 치료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최근 20년간 보편화되고 있다. 권위있는 여러 「암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은 정부나 민간인들의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공헌은 막대하지만, 그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전세계적인 협동으로 과학연구결과의 신속한 교환과 통일치료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몇개의 「협동암연구진」(Cooperative Cancer Study Group)들이 가



장 좋은 예로, 이 연구진의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성취된 各種 癌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연구진들이 국립암연구소의 보조를 받아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예산에 상당액이 이러한 연구기관에 배당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만만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일반국민의 의식표

현으로,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조가 「미국암협회」등의 민간단체들의 전국적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진정 선진국의 국민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의료체계가 절실하고, 실제로 가능해야 하며, 종양학의 발전과 보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한양의대교수 · 의박〉

피부미용QA

Q 갑자기 피부가 당기고 버석거리며 하얀 각질이 일어나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질법이 필요할까요?

A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체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피부의 신진대사도 둔해져 피부표면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작용이 약화됩니

다. 따라서 피부의 오래된 각질이 계속 피부표면에 쌓여서 딱딱하고 거칠어지며 피부색도 나빠 보입니다. 특히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더욱 피부의 건조나 거칠음이 심해 피부가 윤기를 잃고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의 각화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유연화장수를 탈지면이나 거즈에 묻혀 10분 정도 없어두는 유연마스크 손질을 하면 효과적입니다.